

목 차

1 부 — 신학이란 무엇인가?

- 질문 1. 우리는 신학을 하고 있는가?
- 질문 2. 우리는 왜 신학을 해야 하는가?
- 신학의 분류
- 조직신학의 의미와 구조

2 부 — 성경은 믿을 만한가?

- 시작하며: 우리의 질문들
- 질문 1. 성경을 믿어도 되는가?
- 질문 2. 성경은 어떤 책인가?
- 질문 3.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 질문 4.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 질문 5.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나가며

1 부 — 신학이란 무엇인가?

질문 1. 우리는 신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신학을 하고 계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두꺼운 책, 신학교, 어려운 라틴어 용어들... 아마 많은 분들이 신학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 — 이런 생각과 말들이 모두 신학입니다. 신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신학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질문 2. 우리는 왜 신학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번영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병이 낫는다, 사업이 잘 된다, 복을 받는다" — 이런 가르침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복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듣기에는 좋습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요?

세대주의적 해석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특정 시대와 사건에 맞추고,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고, 역사를 특정한 시대 구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런 신학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를 결정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결정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학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바르게 읽으려면 바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세우는 신학**'입니다.

둘째는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은 책상 위의 학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펼치는 신학**'입니다.

한 마디로, 신학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신학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신학의 분류

신학은 크게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를 깊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연구하고, 구약과 신약 각각의 신학적 흐름을 추적하며, 성서고고학을 통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밝힙니다. 성경 본문 자체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는 학문입니다.

역사신학은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2,000 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 왔는지,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살핍니다. 우리가 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2,000 년 교회의 유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체계화하는 분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 이런 핵심 질문들에 대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실천신학은 신학을 삶과 사역의 현장에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전도와 선교, 설교, 목회, 교회 행정,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육, 기독교 상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학이 단순한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과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조직신학의 의미와 구조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갈 신학산책은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합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조직신학은 일곱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입니다. 이 일곱 가지는 각각 독립된 주제가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이룹니다. 신론을 모르면 인간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인간론을 모르면 기독교론과 구원론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인체의 각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을 이루듯, 조직신학의 각 주제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 전체가 흔들립니다. 변영신학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론이 잘못되면 구원론이 왜곡되고, 구원론이 왜곡되면 교회론과 삶 전체가 비틀어집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주제인 **성경론**부터 시작합니다. **성경론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신론도, 기독교론도, 구원론도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론은 조직신학 전체의 토대입니다.

2 부 — 성경은 믿을 만한가?

시작하며 — 우리의 질문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들을 읽어보려 합니다. 읽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에 표시해 두십시오.

-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요?
- 성경이 여러 사람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쓰였는데, 내용이 일관성이 있나요?
- 원본도 없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 번역 과정에서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닌가요?
- 성경에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성경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 보이는데, 같은 하나님인가요?
-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요?
- 성경 66 권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요?
- 다른 종교의 경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만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읽어야 하나요?
- 바른 신학을 알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어떠십니까? 한두 개는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다루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실 때,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질문 1. 성경을 믿어도 되는가?

— *우리의 솔직한 자리에서 시작하기*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믿는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씨름이 신앙을 더 깊게 만듭니다. 성경 안을 보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의심을 쏟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씨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요? 왜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토록 중요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분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신 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뢰도, 순종도, 예배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전체가 걸린 질문입니다.

질문 2. 성경은 어떤 책인가?

—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가다

성경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거나 불신하는 것은 모두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성경의 구약은 세계 3대 유일신 종교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 모두가 경전으로 인정하는 책입니다. 2026 년 기준으로 성경 전서는 803 개 언어로, 신약은 1,837 개 언어로, 단편 성경(성경의 일부 책만 번역된 경우)은 1,516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Wycliffe) 성서번역회**에 따르면 2026 년 현재 전 세계 7,393 개 언어 중 성경 번역을 기다리는 언어는 1,676 개이며, 이 중 번역이 시급한 언어는 535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읽히고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책의 특별함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약 **1,500 년**에 걸쳐, **40 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왕이 쓰고, 어부가 쓰고, 의사가 쓰고, 목동이 썼습니다. 지중해 세계 곳곳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6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책이 **하나의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저자들이 쓴 66 권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한 분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66 권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먼저 '정경(正經)'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은 헬라어 '카논(kanon)'에서 온 말로, 원래 '곧은 막대기', '자로 사용되는 갈대', 즉 '측량자'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재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경이라는 것은 곧 성경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경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과 신앙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먼저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율법서**가 BC 440 년경 에스라 시대에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가르친 사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의 글을 담은 **예언서**가 BC 200 년경에, 시편과 잠언 등 **시가서**가 BC 100 년경에 정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AD 90 년**, 지금의 이스라엘 얌니아 지역에서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 **구약 39 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얌니아 회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미 BC 300-250 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역사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70 인역(Septuagint, 셉투아진트, LXX)**'이라고 부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오스 2 세 왕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세상의 모든 책을 수집하려 했고, 유대인의 경전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번역자를 요청했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각각 6 명씩, 총 72 명의 랍비 학자들을 선발하여 알렉산드리아로 보냈습니다. 이 72 명이 번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70 인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72 명은 72 일 만에 모세오경(율법서 5 권)의 번역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번역했는데 결과가 모두 일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전승의 표현이지만, 이 번역 작업이 얼마나 놀랍고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상당 부분 이 70 인역을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약 인용문들이 히브리어 원문과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70 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70 인역은 초대교회가 구약을 읽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은 더 역동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의 편지와 복음서들이 각 교회에서 낭독되고 필사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갖고 있었고, 어떤 교회는 마가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서로 이 귀한 책들을 나누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책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짓 복음서들과 이단적인 글들도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AD 397 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신약 27 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의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의 중심에 있던 책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경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도성**, 즉 사도나 사도의 직접적인 동료가 썼는가. **보편성**, 즉 초대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 **정통성**, 즉 내용이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기준들을 통과하지 못한 책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개신교 성경에 없는 7 권(외경)이 더 있는데, 이 책들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직접 인용하신 기록이 없어 침례교를 포함한 개신교는 정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본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원본 문서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대 문헌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필사본이 남아 있는 책입니다. 신약만 해도 그리스어 필사본이 5,800 개 이상 존재하며, 라틴어와 기타 언어 필사본까지 합하면 25,000 개가 넘습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는 필사본이 10 개도 안 됩니다. 수많은 필사본들을 비교하고 교차 검증하는 **본문 비평학 (Textual Criticism)**을 통해, 학자들은 원본의 내용을 99% 이상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본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번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성경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구약 원문과 그리스어 신약 원문을 직접 참고하여 번역하며, 수십 명의 신학자와 언어학자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번역본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역본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다른 번역본과 비교하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책이 단순히 잘 보존된 고대 문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고,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고, 죽음 앞에서 평안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글이 갖는 힘이 아닙니다. 이 책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은 어쩌면, 아니 분명히 **이 살아있는 역사**일 것입니다.

질문 3.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육신과 영감의 신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왔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시는가?

성경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성경은 이 첫 구절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부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 이것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는 **내증(內證)**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Revelation)'**라고 부릅니다. 계시란 이전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거나,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이지요. **일반계시(창조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20)

칼빈 (John Calvin)은 이것을 **'신성에 대한 감각(sensus divinitatis)'**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신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씨앗이고, 인간 안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 신이 누구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행 17:22-23)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계시로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 즉 **신 인식** 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 그 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끝이 없는 존재에게 끝이 있는 존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계시(구속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꿈과 환상,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성육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두 내어 주셨습니다. 성육신이 자기를 보이신 것이라면,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그 계시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그 계시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그 날까지,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계시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신학자 칼 바르트 (Karl Barth)의 통찰을 빌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의 도움으로 복음을 들은 것처럼,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기록된 말씀은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성경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성령은 그 성자에 관한 것을 성경기자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성령의 일하심은 성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자는 성부를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부의 뜻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성자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셨을까요? 계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신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 장 4-6 절은 이 목적을 놀랍도록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4-6)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창세 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영감으로 돌아봅시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면, **성경의 영감**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아람어를 사용하시며,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프셨고, 우셨고, 피곤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성이 인성을 파괴하거나 대체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성은 인성을 통해, 인성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성경의 영감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성경기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인격, 신학, 언어, 문체, 감정, 삶의 상황을 파괴하거나 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온전히 통해서,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문체가 있고, 요한의 글은 요한의 색깔이 있으며, 시편은 기자들의 감정이 날것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글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것이 영감의 신비입니다.

디모데후서 3 장 16 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데오프뉴스토스(θεόπνευστος)**'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 장 7 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령이 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갖게 된 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2:7)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날숨**입니다. 베드로후서 1 장 20-21 절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벧후 1:20-21)

성령께서 성경기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신학을, 심지어 그들의 글쓰는 수준과 형식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영감은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미칩니다. 이것을 **축자영감(逐字靈感,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축자(逐字)**란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영감이 성경기자의 사상이나 개념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기자들이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전 인격을 조금도 무시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기도록 일하셨습니다. 마치 악보가 연주자의 개성과 감성을 통해 울려 퍼지되, 작곡가가 의도한 음악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오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무오성(Biblical Inerrancy)은 성경이 모든 면에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디모데후서 3 장 15-17 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5-17)

성경은 그 목적에 있어서 완전하고, 그 목적에 있어서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진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 23:19)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낯선 내용들,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역사 내러티브, 시, 잠언, 예언, 묵시, 서신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읽혀야 합니다. 시편 23 편 "여호와是我的 목자시니"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시적 표현입니다. 또한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Progressive Revelation)입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어려운 본문들은 성경 전체의 흐름, 역사적 문화적 맥락, 그리고 그 본문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을 때**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질문 4.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 성경의 주장을 검증하다

지금까지 성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스스로의 주장 아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자기 증명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 성경은 왜 다른 종교의 경전과 근본적으로 다른가

앞서 일반계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이 신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수행하고, 공부하고, 선행을 쌓고, 명상하여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인간이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참 신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결국 인간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투영한 신, 인간의 노력이 닿을 수 있는 신 — 그런 신은 인간보다 크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면,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분께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인간이 신에게로 올라가는 길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 근거 — 성경의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되었다

성경에는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만 해도 300 개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미 5:2),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사 7:14),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슥 9:9), 은 30 냥에 팔리실 것(슥 11:12),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시 34:20), 부활하실 것(시 16:10) —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 —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가

성경의 신뢰성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7)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경 전체가 신뢰할 만하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시신을 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전 15:3-8)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당시 독자들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는 도전입니다. 오백여명의 목격자들 중 대다수가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근거 — 성경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킨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한 사람들, 죽음 앞에서 평안을 찾은 사람들 — 이들의 이야기는 2,000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논증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질문 5. 그렇다면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신뢰할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성령께서 성경기자들을 통해 일하실 때, 그들의 신학, 언어, 문체, 삶의 상황을 통해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일하심은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기자에게 일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언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기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인 이유입니다.

10 년 전에 읽었을 때와 오늘 읽었을 때, 같은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성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달라진 나의 상황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동일한 본문을 살아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악보는 변하지 않지만 연주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울리듯,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지만 읽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다니엘 미글리오리 (Daniel Migliore)는 성경 읽기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역사적, 문학적 감수성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 역사 문화적 배경, 글의 장르, 문법과 단어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언어와 문화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읽게 됩니다. 번영신학이나 세대주의적 해석의 문제도 상당 부분 여기서 옵니다. 본문을 그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떼어내어 읽을 때 왜곡이 생깁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신학을 염두에 두고, 모든 본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셋째, 교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원래 눈으로 읽는 책이라기보다 귀로 듣는 책이었습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책입니다. 사도행전 8 장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혼자 읽다가 막히면 함께 읽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행 8:30-31)

교회는 성경을 함께 읽고 해석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산책을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Martyn Lloyd-J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100% 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참됨을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십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5 년 후, 10 년 후에 갑자기 빛처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해 수준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바른 신학을 위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바른 신학을 위한 성경 읽기입니다. 변영신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에서 실패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무시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닌 인간의 욕망 중심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역사적, 문학적 장르를 무시하고 묵시 문학을 문자적으로 읽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른 신학은 바른 성경 읽기에서

나오고, 바른 성경 읽기는 이 원칙들을 지켜가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산책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며 —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오늘 우리는 성경이 믿을 만한가를 질문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방향이 뒤집혀야 합니다.

성경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일반계시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 당신의 흔적을 남기셨고, 특별계시를 통해 성경기자들에게 임하셔서 성자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찾아오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품으셨던 그 목적,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향해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명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날숨입니다. 그 날숨이 우리의 들숨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리를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의 중심에 성경이 있습니다.